연휴 끝났어도 영화계는 여전히 풍성~

‘아수라’ ‘대결’ ‘설리:허드슨강의 기적’ 등 국내·외화 기대작 줄줄이 개봉

긴 추석 연휴에 볼만한 영화를 다 봤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추석 연휴가 끝났어도 개봉을 앞둔 기대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달 28일 개봉하는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가 ‘밀정’에 이어 한국영화 흥행을 이끌어갈 작품으로 손꼽힌다.

‘아수라’는 강력계 형사 한도경(정우성)과 악덕 시장 박성배(황정민), 독종 검사 김차인(곽도원), 검찰수사관 도창학(정만식)이 각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거침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박 시장은 유권자들 앞에서는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지만 뒤로는 증인 납치, 살인교사 등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인물이다. 한 형사는 암 말기인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런 박 시장의 뒤처리를 맡는 대신 돈을 받는다. 김 검사와 도 수사관은 한 형사를 협박해 박 시장의 범죄 혐의를 캐려 한다. 한 형사의 후배 문선모(주지훈) 형사는 한 형사의 권유로 박 시장의 수행팀장이 됐다가 서서히 악에 물든다.

‘아수라’는 기존의 범죄 액션과 같이 선과 악의 대결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악당들이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악인열전’을 보여준다.

애초 제목은 ‘반성’이었지만 대본을 읽은 황정민이 “완전, 아수라판이네”라고 말한 데서 제목을 ‘아수라’로 바꿨다고 한다. 아수라(阿修羅)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을 뜻한다.

‘아수라’는 정우성, 황정민, 주지훈, 곽도원, 정만식 등 한국영화계에서 내로라하는 배우가 한데 뭉친 것만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다른 한국영화로 22일 첫선을 보이는 정통 액션영화 ‘대결’이 있다. 청룡(成龍)의 ‘취권’(1978)을 현대 한국사회에 맞게 재단장한 영화로, 통쾌한 액션 장면이 돋보인다.

‘대결’은 ‘현피’(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 싸우는 행위)에 의한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강호(이정진) 경사가 의문의 용의자에게 크게 부상하자 동생인 취업준비생 풍호가 그 용의자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풍호는 형을 다치게 한 범인으로 밝혀진 게임회사 대표 한재희(오지호)와의 대결에서 패한 뒤 우연히 알게 된 황 노인(신정근)에게서 취권을 배워 재대결에 나선다.

외화 중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35번째 연출작 ‘설리 : 허드슨강의 기적’(이하 ‘설리’)이 영화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8일 국내에서 개봉하는 ‘설리’는 2009년 1월15일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실제 비행기 사고를 다룬 영화다.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실은 US항공 소속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새떼와 부딪혀 양쪽 엔진이 꺼지면서 허드슨강에 비상착수를 시도한다. 다행히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돼 이 사고는 ‘허드슨강의 기적’으로 불리게 됐다.

영화의 제목 ‘설리’는 이 비행기를 조종한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의 애칭이다. 이스트우드 감독은 자칫 영웅주의에 빠질 수 있는 소재를 균형감 있게 다루는 노련한 연출로 관객들이 부담감 없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요리했다.

일본영화 ‘아이 엠 어 히어로’가 올여름 흥행 대작 ‘부산행’이 불을 지핀 좀비 장르에 대한 영화팬들의 관심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화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ZQN’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면서 사람을 물어뜯는 감염자들로 아수라장이 된 도쿄에서 살아남은 이들과 감염자들간 대결을 그리고 있다.

‘아이 엠 어 히어로’는 가족 드라마 성격이 가미된 ‘부산행’과 달리 클래식한 좀비영화다. 좀비 장르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좀비 살육’이 장엄하게 그려져 좀비장르 팬들의 기대를 십분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 영화가 얼마나 ‘하드코어’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2일 개봉한다.

12년 만에 국내 관객을 찾는 이와이 슌지의 신작 ‘립반윙클의 신부’,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한 획을 그은 ‘브리짓 존스’ 시리즈의 최신작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팀 버튼 감독의 미스터리 판타지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도 영화팬들의 주목을 받는 외화다. 세편 모두 28일 개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영화 ‘밀정’ 추석 극장가 흥행 독주

17일 하루 73만 관객 … 600만 고지 눈앞

올 추석 극장가의 최종 승자는 영지 ‘밀정’이었다. 강우석 감독의 ‘고산자, 대동여지도’와 팽팽한 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은 일찌감치 빗나갔다.

말 그대로 ‘밀정’의 완승이었다. 세기의 걸작으로 꼽히는 명작을 리메이크한 ‘벤허’와 ‘매그니피센트7’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밀정’의 흥행 독주를 막지는 못했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김지운 감독의 ‘밀정’은 17일 하루 동안 73만6911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558만4270명으로 6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지금까지 이 영화가 벌어들인 돈은 460억 원이다. ‘밀정’의 총 제작비는 140억 원으로, 손익분기점(BEP)인 420만 명을 이미 넘기며 제작비 전액을 회수했다.

특히 ‘밀정’은 개봉 11일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하며 천만 영화 ‘변호인’(13일)과 ‘국제시장’(15일)보다 빠른 흥행 속도를 보여줬다. 역대 추석 흥행작인 ‘광해, 왕이 된 남자’(18일)와 ‘사도’(16일)의 기록도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밀정’이 기세를 더욱 올리며 천만 영화 대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하루에 최대 86만 명의 동원하며 관객을 싹쓸이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이서진·에릭·윤균상

‘삼시세끼’ 섬 간다

어촌편 시즌3 내달 14일 첫 방영

고창에서 무더운 여름을 난 ‘삼시세끼’가 새로운 섬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가을을 맞는다.

tvN은 배우 이서진, 에릭, 윤균상을 주인공으로 한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3가 다음 달 14일 오후 9시15분에 첫 방송 된다고 알렸다.

어촌편3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를 무대로 했던 어촌편 1, 2와 달리 새로운 섬에서 촬영한다.

누리꾼들은 농촌편(정선편)에서 활약했던 이서진이 드디어 어촌편을 찍는다는 점과 tvN 드라마 ‘또 오해영’으로 인기가 급상승한 에릭(본명 문정혁)이 출연한다는 점에 특히 기대를 한껏 키우는 분위기다. 최근 SBS TV 드라마 ‘닥터스’ 종영 인터뷰에서 나영석 PD 프로그램에 출연 의사를 밝혔던 윤균상은 결국 ‘삼시세끼’에 합류하게 됐다.

나영석 PD는 “이서진과 에릭은 드라마 ‘불새’ 인연으로 서로 친분이 있다”면서 “특히 에릭은 취미가 낚시라 어촌편을 함께하기에 최고인 멤버”라고 소개했다. 나 PD는 이어 “막내 윤균상은 튼튼하고 밝은 청년”이라면서 “두 형님과 함께 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그린토피아 남도 미래를 열어라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밥상의 전설 55 별별가족	00 이웃집 찰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2	00 명인 (재) 50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키즈 사이언스 6	35 위대한 유산 (재) 55 TV블로그 꼼지락
3	4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50 안녕 우리말 55 튼튼생활체조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깨미탐험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꼼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려〉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2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35 사랑의 가족(재)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2016 리우 패럴림픽 폐회	10 꽃놀이패 5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서부 트레일 캐니언랜즈, 아치스, 세도나〉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뿡뿡이
09:15 출동! 슈퍼윙스
09:30 이얍! 스페이스 정글
09:40 아버지의 귀환
10:30 한국기행 (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버섯 들깨탕, 소고기 감자조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시계마을 티키톡!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야옹멍멍 귀여워
15:35 요술 상자(2)
15:45 출동! 슈퍼윙스
16:15 방귀대장 뿡뿡이(재)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황금들판〉
20:50 세계테마기행 〈지구의 생명을 보다, 아이슬란드-빙하의 비밀〉
21:30 한국기행 〈능선기행〉
21:50 EBS 다큐 프라임 〈모멘트 - 영원과 순간의 사이〉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위험한 흉내쟁이, 꽃사마귀〉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9일(음 8월 19일 甲辰)

子 48년생 양자의 차이가 큼을 감안 하자. 60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쉽게 넘어가서는 아니 되느니라. 72년생 형국의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원인부터 인식하라. 84년생 방심하다가는 순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0, 71

丑 49년생 다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자. 61년생 애초의 예상대로라면 순기능을 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73년생 확대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대하자. 85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행운의 숫자 : 57, 29

寅 50년생 빨리 포기 할수록 현명하다. 62년생 흉사가 뒤따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때다. 74년생 상대의 속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야만 제대로 조처 한다. 86년생 파격적인 발상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96

卯 51년생 믿고 의지했던 바가 불시에 사라지는 구도이니라. 63년생 투명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75년생 가변적인 형국까지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7년생 귀인의 방문이 있을 것이니 맞이할 채비를 하라. 행운의 숫자 : 98, 09

辰 40년생 적극적으로 이행해야만 목적에 부합하리라. 52년생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갈 수 있다. 64년생 충동적인 판단이었다면 재고 해볼 여지가 있다. 76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88년생 실제적인 활용 가치에 주목하라. 행운의 숫자 : 27, 64

巳 41년생 불가능하다고 여겨온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단계에 와 있다. 53년생 예사롭지가 않다. 65년생 다수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77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자. 89년생 완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91, 65

午 42년생 도모하는 것보다 그대로 있는 것이 백번 낫다. 54년생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낫다. 66년생 총체적 점검과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78년생 추진하다 보면 해묵은 의문점이 저절로 풀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0, 41

未 43년생 안정세를 띠기 시작할 것이다. 55년생 기존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 것에 대해서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다. 67년생 뜻대로 진행되나 이득은 미지수다. 79년생 좀 더 크고 먼 안목으로 바라 보는 것이 어울린다. 행운의 숫자 : 77, 83

申 44년생 원칙은 알고 있되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 56년생 확실한 안전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니라. 68년생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80년생 기운이 상승세를 타면서 입지가 굳혀지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49, 83

酉 45년생 단단히 매듭을 지어놓자. 57년생 진행하는 방식이 구체적이어야만 설득력을 갖는다. 69년생 안배를 잘 해나간다면 성취하게 되리라. 81년생 상대의 조언을 가볍게 여긴다면 난감해질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55, 04

戌 46년생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하면 무난하리라. 58년생 얼마나 실용적이냐에 따라서 효과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70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82년생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 하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75, 32

亥 47년생 극복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59년생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되었다. 71년생 형식적인 절차는 사족일 수도 있다. 83년생 기정 사실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정확히 해야만 후회가 없다. 행운의 숫자 : 99, 6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